

5. 기타암

34

반도체 제조업 근로자의 유방암

| | | | | | | | |
|----|---|----|-----|----|---------|-------|----|
| 성별 | 여 | 나이 | 32세 | 직종 | 공정관리 검사 | 직업관련성 | 쟁점 |
|----|---|----|-----|----|---------|-------|----|

1. 개요

신○○은 2000년 4월 Q 반도체 업체에 입사하여 전자현미경으로 제품(웨이퍼) 불량검사 업무를 해 오다가 2005년 9월 퇴사 후 2009년 11월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2. 작업환경

신○○은 Q업체에서 한 업무는 제품(웨이퍼)의 먼지를 장비를 통해 검사하는 업무이다. 이 때 사용하는 장비는 디스커버리와 퓨마라는 이름의 자동검사 장비와 전자현미경이 있다. 먼지나 이물질이 묻은 오염된 웨이퍼의 불량코드를 매기고 스크래치 등 불량상태를 육안검사를 하기도 하고 오염이 심한 웨이퍼는 폐기처분 하는 일을 하였다. 근무 형태는 3조3교대와 4조3교대의 교대제에 근무하였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였다. 2005년 1월~9월까지 약 1/4에 해당하는 기간에 밤 10시부터 근무를 시작하는 밤 근무를 수행하였다. 해당공정은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 측정결과가 없었다.

3. 의학적 소견

2009년 유방에 함몰이 드드러지게 보이는 증상으로 B병원에서 조직검사 후 악성종양 진단받고 유방암제거 수술을 하였고 이후 항암치료 및 방사선 치료를 수행하고 있다. 가족력에 암이 없으며 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않았다. 2003년~2005년 건강검진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

4. 고찰

최근 교대근무와 유방암의 관련성이 주목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국제암연구소에서도 group 2A로 연관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5. 결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두가지 의견으로 나뉘어졌다.

업무관련성 있음

- 노출위험요인들과 그 수준이 충분히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 5년간의 교대근무력과 Q와 유사한 반도체업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유방암의 표준화발생위험도 등을 고려해 볼 때
- 통상적인 발병연령보다 낮은 연령에서 발병하였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업무관련성 낮음

- 유방암은 아직 명확히 알려진 직업적 요인이 없고, 퇴사이후 다양한 유방암의 요인에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며,
- 화학물질과 방사선에 대해 직접적인 노출이 없거나, 저농도 노출이며,
- 교대근무 기간이 짧으며(5년), 교대근무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더 연구되어야 하므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